

공룡이 죽은 원리를 생각하자

양계산업중 특히 육계업은 87년 8월 이후로 현재까지 불황을 거듭하고 있어 업계 전체에 대한 구조개선이 시급함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와 같이 사양가는 농장안에서 생산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제아무리 하여도 소득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모두가 하루속히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깨닫고 있으면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업계 전반적인 것이나, 정책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보니 남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의태심을 가지고 있는 양축가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수원시에 있는 수원육계분회를 찾아와 보니 회원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의식, 자발적인 문제해결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취재: 김 옹 화 기 자

수원은 축산업의 중심지

현재 수원육계분회는 조정래분회장을 중심으로 31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짜임새 있는 분회이기도 하다. 78년 육계업자 60여명이 참여하여 만든 이곳은 분회장만도 10대째에 이른다. 한때는 채란업자도 참여하였지만 현재는 육계업자들로만 구성이 되어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수원지역은 옛부터 축산업분야의 국가행정기관이나 연구소가 있어 좀 일찍 개화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총회원이 30여명으로 줄어든 것은 인근지역의 용인이나 발안등지에 또다른 분회나 계우회를 통하여 살림을 내주었기에 인원이 사실상 줄어든 셈이지 육계업자의 참여도가 낮아져서 위축된 것



조 정 래 분회장

은 결코 아니다. 회원 대개가 1~3만수 규모의 육계생산자들인데 초창기에 참여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분회운영에 정성을 쏟고 있다.

그러면 분회장을 맡고 있는 조정래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소득보장이 금선무

“이곳 수원육계분회는 그간 역대 분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

기 때문에 오늘날 어려운 육계산업에 직면하여 있어도 회원중 아직 도산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분회를 이룩했다고 봅니다. 어려운 점들이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선 생산비선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육계가격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수입개방이 현실화된 마당에서 아직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확립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육계업자들은 어떤 방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런지 감을 잡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 고충입니다.”

육계업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각종 모임이나 분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는 조사장은 구태여 수원육계분회의 자랑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일축을 하고 나서 금일의 육계업자, 나아가 양계업자 모두에게 전하는 말로 취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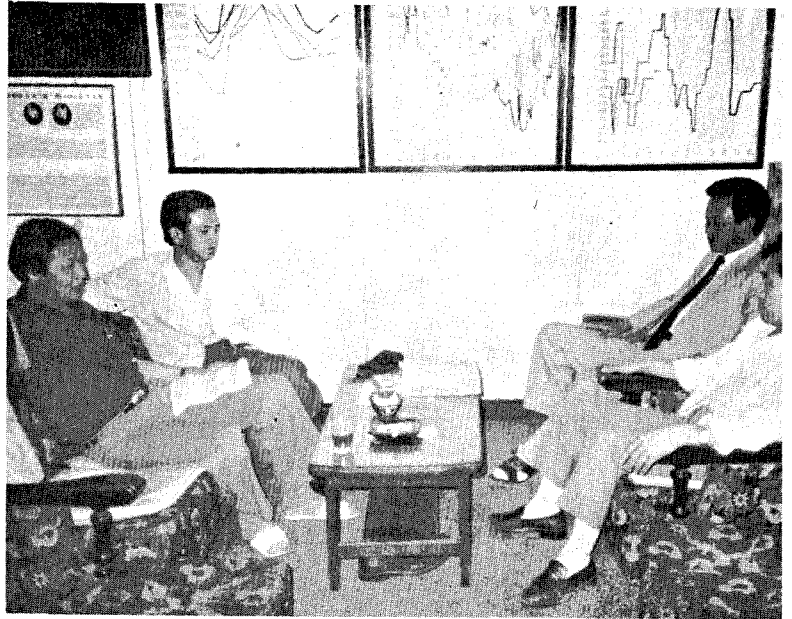
임해주었다.

통계분석은 자신이 해야 할 일

“무엇보다 우선 공룡이 죽은 원리를 상기해야 합니다. 가끔은 과욕으로 입주를 한 육계업자가 출하때 닭값이 나쁘면 누구누구 탓이다, 협회통계가 문제다, 부회장이 병아리를 많이 부화를 해서다 하는 불평들을 하는데 지나 저희 회원들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도 어떤 모임이 있는지, 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모르고 양계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건 가입이야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겠지만 정보전쟁이라고 할 만큼 현대사회는 정보가 중요한데 업계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서 뒤지게 마련입니다.

분리는 위험, 하나로 뭉쳐야

그리고 우리의 생업을 위협하는 타산업의 압력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데 마음편히 닭이나 키운다고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일부에서 업종별로 나누어 협회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분야별로 전문화를 시켜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별도로 협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업종별로 발생하는 대립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수입개방에 앞서 큰소리로 권익 보호를 위해 뭉쳐야 할 시기에 또다른 단체가 난립한다면 우리업계의



힘만 약화된다고 봅니다.

가끔은 협회와 조합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속히 양계업자들이 변화해가는 사회 현실에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각종 지역별 모임은 그대로 존속 시키며, 조합은 조합대로 운영을 하고 이들 모두가 다시 순수한 압력단체인 협회에 가입하여 움직인다면 우리도 우리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 받으며, 양계업계 내에서는 서로가 질서를 유지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사업을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세우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그렇다고 국가에서 각 개인의 사업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국방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협회의 중요성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설명을 하는 동안 어조가 꽤나 높아졌다. 그리고 나서 장차 분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묻자, “앞으로 세상은 많이 변화를 할 것으로 보아 정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서서히 도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나 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건 우리 회원 만큼은 자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통계 그 자체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지만 수자 자체가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간중간에도 얼마든지 사회여건 변화로 경기는 예측과 빗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여건 변화를 어떻게 빨리 읽어 통계수자와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성공이나, 실패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연구분석은 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수자의 결과만 가지고 많아졌으니 줄었으니 하다보니 실패를 하면 남들 탓만하게 됩니

다. 이점을 고려해서 저희 분회는 회원 나름대로 통계수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분석을 할 수 있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설명을 마친 조사장은 금년도 10 월까지는 시세회복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무거운 입을 떼고는 이것이 다 양계업자 스스로가 단합하지 못한

과다한 경쟁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나무란다. **양계**

〈수원육계협회원 명단〉

수원- (0331)			용인- (0335)		
조영수	이목동 295	37-0839	박중희	태안읍 배양리 69-226(현대농장)	34-4368(34-1087)
조정래	연무동 148-16	42-3413	조용호	남양면 북양리 457	6-2068
강석부	우만동 현대아파트 2동 301호	32-3571	최병교	정남면 계항 1리	52-2149
신병철	이의동 293	42-6535	박성귀	남양면 신남 1리	6-3912
정웅영	구운 2동 173	42-2033	김무열	오산읍 내삼미리 654-1	8-1556
박종욱	정자동 백조아파트 104동 305호	6-7592	이수근	정남면 문화 3리	52-2429
이종우	이목동 244-2	45-6806(5-4197)	용인- (0335)		
양희진	금곡 523	42-1024	이규영	기흥읍 영덕리 712-3	32-7864
화성- (0339)			고학동	기흥읍 영덕리 712-3	33-2692
김명제	태안읍 기산 1리 244	36-2922	이재석	기흥읍 영덕리 712-3	32-6827
최덕기	반월면 임북리	5-1465	정봉훈	기흥면 신갈리 347	8-4416
최종진	반월면 임북 2리 236-2	7-1705	유국희	구성면 상하 1리	8-4964
최길영	장안면 독정 1리 864	4-0774	김동민	기흥면 고매리 360-3	8-2641
문태영	태안읍 안녕리 170-17	35-0377	이한문	포곡면 유운리	32-5822
최안수	태안읍 황계리 102-5	32-5692	노재희	남사면 방아리 산 76	32-6257
강창복	태안읍 황계리 177	32-4999(33-1370)	심영주	남사면 완창리 중동 361	32-2480
			박신광	수원시 라동 221-5	35-6890

사 원 모 집

당사는 동물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약회사로서 다음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인재를 공모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

부 문	인 원	자 격
기획업무	약간명	수의·축산·사료 관련 4년제 정규대학 졸업생 (혹은 졸업예정자)
영업업무		

※ 희망직종을 이력서 상단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근무가능자에 한함.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첨부)..... 1 통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통
 자기소개서 1 통

4. 제출기한 1988. 6. 15 까지

5. 제출처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한우빌딩 5층)
 제일화학 서울사무소 ☎ 586-0482~5